

民族文學의 現段階와 方向性

양 지 은 *

目 次

- I. 序 言
- II. 本 論
 - 1) 民族文學의 概念 認識
 - 2) 民衆의 意味
 - 3) 民衆文學의 展開 樣相
 - 4) 民衆文學이 갖는 자리매김의 두 形態
 - 5) 黃哲暎의 「客地」를 中心으로 본 民族文學
 - 6) 民族交學의 方向性
- III. 結 言

I. 序 言

文學에 있어서 現實意識은 매일 반복되는 나날의 市井의 生活 자체를 가리키는 것만이 아니며, 政治制度나 경제구조만을 問題삼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기는 하지만, 이보다도 한 차원을 높여서 <歷史的 實現>을 보는 것이다.

* 학생회원 4학년

歷史는, 歷史를 운영하는 人間들의 천부적으로 타고난 〈人間本性〉을 통해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理性과 良心을 발휘하는 데서 지탱되어 가며 歷史의 합법칙적 발전이라는 것도 실은 이 自然法的 當爲性에 의해 성취되어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歷史的 現實 안에서 감수성으로 인간과 사물을 형상화하여 인식하고 가치創造를 하는 文學은 그것이 當代的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원성을 지니는 것이 될 수 있다. 가장 人間다운 人間의 文學, 가장 人間性이 풍부하게 담긴 文學, 그리하여 그 속에서 人間의 自由와 平和와 구원을 얻게 하는 文學이 요청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民族文學의 現段階와 方向性 또한 이러한 요청을 함께 하면서 하나의 보다 나은 民族文學을 만드는 데에 한 몫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現場文學藝術運動을 理論化하고 기존 문학예술의 소시민성을 탈피하여 민족문학 예술운동의 참된 일꾼들을 묶어내는 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

Ⅱ . 本 論

1 . 民族文學의 概念 認識

韓國에서 〈民族文學〉에 해당하는 뜻의 개념어가 처음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26년경의 일이다. 이 해는 병인년으로서, 그때로부터 4백여 년 전인 세종 29년 병인년에 〈한글〉이 처음으로 반포 되었음을 記念할겸 文學인들이 이른바 〈가갸날〉 (한글날)을 매년 기념하기로 정하는 한편 〈國民文學〉운동을 제창하였다. 이 시절의 〈國民文學〉, 〈民族主義 文學〉은 70년대의 오늘에 거론되는 〈民族文學〉과 語源에 있어서는 一致하는 점이 있

다. 즉, 서양말로서는 〈내셔널〉(National)이란 말에 해당하는 점에서 그렇다. 원래 〈내셔널리즘〉이란 말이 現代에 들어와 영국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日本에 옮겨질 때 〈國家主義〉, 〈國民主義〉등으로 쓰인데 영향을 입어 일제하 조선에서 〈國民文學〉이란 말로도 쓰인 것이다.

그러나 20년대의 國民文學, 30년대의 民族主義文學 등은 당시에 있어서의 性格的 特性에 의해 그 개념이 한정지어진 것으로 보게 된다.

8·15 해방 이후에는 〈韓國文學〉이란 말이 많이 쓰이게 되었고, 이 말은 일반적인 성격을 띠고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말에 특수한 의미를 붙여 생각할 수도 있으니, 그것은 해방 후 물밀 듯이 들어 온 서구 문화의 위력 앞에서 코즈머폴리탄적인 감정이 섞인 말이고, 世界를 학과의 상대적 구분에서 그치는 의미의 말이라고 할 수 있다.¹⁾

70년대에 쓰이게 된 〈民族文學〉이란 말은 20년대 國民文學과 30년대 民族主義文學과는 물론 다르며, 또 해방 후의 〈韓國文學〉 개념에서도 진일 또한 것이다.

2. 民衆의 意味

70년대까지 행해져 오던 민족문학이 80년대로 들어와서는 민중문학이라는 명칭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우리나라에 民衆이란 어휘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24년 동아일보 2월 6일자 신문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 이전에 이와 비슷한 의미로서 개화 이후에 ‘人民’과 1920년 이후 社會主義 理論에 입각한 ‘인민대중’

1) 具仲書 〈民族文學이 나아갈길〉 p. 10.

이란 어휘를 써 왔는데, 대체로 서재필, 윤봉길, 송진우, 동아일보 등 부르조와 운동가들이 사용한 ‘민중’이란 어휘는 현상에 대한 모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階級意識으로까지 승화시키지 못하고, 그러나 다분히 대항적이고 대칭적이며 어떤 形態든 변혁을 추구하는 집단의식의 성향을 띤 계층이라는 意味를 띠고 있다. 즉, 歷史에서의 靜態論的 대상이 아니라 動的인 변화를 희원하는 다수의 사람들로 상정하고 思想的으로 볼 때 民衆은 社會主義나 資本主義의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는 이념적 양극화나 절대개념으로는 표현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民衆의 意味는 8·15 이후에 와서 문필가를 中心으로 하는 民族主義 진영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는데 미군정의 종식과 더불어 ‘민중’이라는 슬어는 우익의 소아병적 정치풍토 속에서 言語의 政治淨化法에 묶여 사라지게 된다. 그러다가 歷史的 變革이 불가피한 60년대 초에 다시 등장 하였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졌다가 80년대에 재등장하여 점차 활기를 띠게 된다.

‘民衆’이란 슬어를 歷史的으로 파악하여 언급한 이유는 現在 使用되고 있는 ‘民衆’이란 어휘가 좌익측 슬어라는 엄청난 편견으로부터 탈피하여 본고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견지하자는 의도에서이다.

그러면 民衆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가. 이희승氏의 「국어대사전」에는 <다수의 국민>이라 定義하고 있는데 이처럼 ‘民衆’은 워낙 수요가 많고 실제로 누구누구이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일이 그리 수월하지가 않다. 백낙청씨의 主張을 빌면 이 이유를 수요가 많고, 계층과 계급 구성이 복잡할 뿐더러 민중의 모습이 나라와 역사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民衆’의 性格에 대하여 지금까지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규정을 내리고 그 안에서 현재 우리 민족의 ‘民衆’들을 가려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먼저, ‘民衆’의 성격에 대해서는

첫째 : 소수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다.

둘째 : 지배자가 아닌 피지배자이다.

셋째 : 경제력이 약한 사람들이다.

넷째 : 역사 발전의 순리를 가장 당당하게 바라 볼 수 있으며 그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사회의 民衆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로 규정되어 있다고 규정지어 지며, 결국 민중문학은 이런 민중들의 사상이나 감정, 생활 모습들을 역사적 시각 위에서 표현한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작품 창작 주체의 범주에 대해서는 피하기로 하겠다. 그 이유는 그러한 논쟁이 불필요한 것임을 앞으로의 논고를 통해서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民衆文學의 展開樣相

現在 우리나라 民族文學이 안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분단 극복의 문제이다. 그런데 이 분단 극복의 문제는 民族自主化, 民主化의 문제로서 對外 계속성·반민주성으로 인해 혹심한 저임금·저급가 등 민중의 경제·정치·사회·문화적으로 소외 현상이 나타난다. 즉, 분단으로 인해 가장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민중들은 민중주체의 민족 자주화와 민주화를 통한 민중의 소외를 극복함으로써 분단극복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민중의 본질을 파악한 70년대의 지식인 작가들은 민중주체의 문학작품들을 그려내기 시작했는데, 그 첫 신호탄은 황석영의 「객지」를 통해서 쏘아 올려졌다.

「객지」는 민중이라는 주체를 주체로서 발견한 70년대 민중문학의 신호탄인 동시에, 해방 이후 한국문학에서 노동문학의 효시가 되고 있으며, 작가

의 선진적인 역사의식과 민중세계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두고 있으나, 作品 속에서의 主人公 設定에서 드러나는 作家의 英雄主義的 觀點에 그 限界性을 지적 받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점은 노동수기에서도 보여준다. 이런 英雄主義的 觀點의 한계성은 勞動手記와의 比較를 통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勞働者들의 問題는 노동자들 자신의 集團的 투쟁력의 고양을 통해서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英雄主義的 觀點의 限界性은 70년대 초반의 민중세력이 아직 전반적으로 조직적 운동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의 知識人 作家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민중의 대변인 노릇을 지칭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한계의 드러남은 어쩌면 必然的인 것일 수도 있다. 즉, 觀念性의 表出보다는 客觀의 반영이라는 것이다.

뒤이어 發表된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노동문제와 도시빈민 문제를 하나의 틀 속에서 파악, 그 위에 勞働者들과 對比되는 資本家 階級의 生活이나 意識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여 當代 노동계급이 처한 상황을 비교적 총체적으로 보여 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피착적인 결말에 머물러 버리고 노동자 계급에 대한 애정이 감상적 연민에 안주해 버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7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행해지던 지식인 문학가들의 민중지향적 민족문학들은 80년대로 넘어오면서 퇴행적 길을 걷게 된다. 80년대 들어 강화되는 예속독점 자본의 민족현실에 대한 전일적 지배력이 중산층에 대한 생존 조건 자체를 끊임없이 분열시켜 나가는 데서 오는 삶의 선택 문제로서 중산층의 분해가 일어났으며, 동일된 선택을 지식인 작가들에게도 강요받게 되어 구체적 작품 속에 나타나게 된다. 또한 80년대의 벽두에 일어났던 광주항쟁은 민중들의 의식과 노동운동의 성장 발전의 계기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가운데 지식인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민중운동에 실천적 노력이 따르지 못한 결과, 이제까지 이루어져 왔던 민중지향적 문학에서 분

단문학이나 역사문학으로 방향을 돌려 작품활동을 하게 되는 소시민화, 주변화, 왜소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반면에 1980년 5월 광주항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민중은 문학에 있어서도 문학의 민주화와 민중의 문학적 주체성 고양에 따라 그들의 손에 의해 직접 생산된 문학이 급격히 대두되었다. 그들은 전문문인 위주의 기존문학 틀을 상당부분 깨뜨리면서 새로운 문학틀, 새로운 문학본의 정립을 요구하며 80년대 문학의 주체적 입장으로 서게 된 것이다.

시·소설·수기·노래가사 바퀴 부르기·일기·춘극대본·선언문·팜플렛 등 생생한 현장성과 민중의 정직하고 진솔한 목소리를 담은 이들의 문학은 集團的 運動의 過程에서 形成되고 노래 불리워진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실제적 體驗을 바탕으로 한 現場性的 美德을 담고 있다. 특히 유동우의 「어느 돌맹이의 외침」을 효시로 하는 勞動手記는 노동자들이 노동의 현장에서의 生活體驗과 勞動運動의 經驗을 기록한 文學으로서 다른 산문문학에서 주는 眞實性和 感動을 한층 더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80년대 韓國文學界에 가장 커다란 충격을 던져준 詩人은 바로 박노해이다.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은 메말라 가는 현대 산업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진솔하게 表現하고 있다. 그의 시들은 노동현실의 구체적 체험에 깊이 뿌리박고, 그 현실을 살아가는 근로자들의 절망과 슬픔, 원한과 분노의 정서를 놀랍도록 생생히 담아 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인간다운 삶을 향한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일어섬 속으로 녹아 들어가 일구어 내는 민중의 정서를 탁월하게 보여주고 있다.

4. 民衆文學이 갖는 자리매김의 두 形態

民衆에 의한 민중의 文學이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문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볼 수 있

다. 勞動文學과 農民文學이 그것인데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勞動文學

資本主義社會의 가장 핵심층인 노동자는 문학에 있어서도 민중문학의 핵심을 이룬다. 80년대를 기점으로 아래로부터의 분출로써 대두된 문학적 역량이 세인들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석정남「불타는 눈물」(76), 유동우「어느 돌맹이의 외침」(77), 야학 출신의 십대 노동자들의 글「비바람 속에 피어난 꽃」(80), 송효순「서울로 가는길」(82), 근로자들의 글모음「우리들 가진것 비록 적어도」(83) 등 지식인 작가가 쓰긴 했지만 전태일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록「어느 청년 노동자의 죽음」(83), 석정남「공장의 불빛」(84) 등 대량의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이렇게 대량으로 생성된 노동문학은 疎外の 文學임을 그 特徵으로 한다. 그것은 勞動文學을 규정하는 現實的 疎外の 당연한 反映의 結果로서 文學이 사회적 의식의 한 形態인 이상 일정한 사회 구성체의 물질적 토대에 의해 그것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한다면, 노동문학은 노동문학을 산출한 현실적 물질적 기반하에서 생성되며, 생존 자체가 위협당하는 환경에서 생성된 문학은 당연히 疎外の 文學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문학은 소외의 문학이면서 同時に 소외극복의 문학이다. 즉, 勞動文學은 다른 어떤 문학보다도 소외를 자신의 본질로 삼으면서 存在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까닭에 소외를 지양해 나감이 가능한 것이다.

2) 農民文學

祖國의 近代化라는 이름아래 농촌은 정치·경제·사회·문화면에서의 소외와 저곡가 정책, 농축산물 수입 등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1982년은 ‘60년 이래 최악의 농가수익’ ‘60년 이래의 최고의 이농율’을 낳을 만큼 농촌의 실정은 어둡고 암담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산

업화의 추진으로 말미암아 농촌인구가 격감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농민은 인류문명의 새벽을 열었던 사람들이며, 또한 한 민족 한 나라의 양식을 自主的으로 해결하기 못했을 때 개인은 물론 나라의 자주성조차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됨을 우리는 익혀 보아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農民文學은 이러한 農村現實에 대한 자각과 반성,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선결 과제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소재주의적 경향이 짙은 農村文學論으로 시작하여 신경림의 「새재」, 김춘복의 「쌈짓골」, 송기숙의 「자랏골의 비가」 등이 農民文學으로 상당한 평가를 받았는데, 그 作品들 대개가 농민적 정서 획득에는 성공했는지 모르나 농촌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데까지는 미진한감이 없지 않다.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개방경제 이후 소값 폭락, 농가부채 급증, 자살농의 出現으로 農家經濟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러한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의식들이 농민회 회지나 여타 무크지를 통해서 農民文學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84년도에 발표된 농민들의 공동창작시 「옹매듭두 풀구유」나 김용택의 「심진강」, 「맑은날」 등이 농민작가로서 농촌 현실에 뿌리를 내려 농민들로 하여금 험이나 절망을 토해내고 그것을 치받고 올라오는 끈질긴 생명력을 길러내고 있다. 특히 김용택의 시들은 농민 속에 살아있는 전통적 형식을 생생하게 불러 일으킴으로써 빼어난 농민사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마당은 빼뚫어졌어도 장구는 바로치자’에서처럼 지나온 시절과 오늘의 농촌을 것처럼 진절하고 투명하게 읊어대는 것이다.

이상으로 민중분학과 농민문학에 대하여 대강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는 황석영의 「客地」를 中心으로 민족문학의 性格을 論해 보기로 하겠다.

5. 黃哲映의 「客地」를 中心으로 본 民族文學

황석영의 상상세계를 읽는다는 일, 그의 作品을 表面에 드러난 의도와는

달리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두 뛰어난 作品, 특히 小説은 리얼리스틱하며 상상적이어야 한다. 현실과 상상력은 그 어느 것이 우세하면 한쪽이 죽어버리는 式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어 作品에 作用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로 엮어져 있기 때문이다.

197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탑」이 당선 되면서 많은 작품활동을 해 온 황석영은 당시의 잠재적 상태에 있는 민중의 요구를 포착하여 그것을 대변하는 知識人 主體의 文學的 性格을 선구적으로 드러낸 작가이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객지」는 민중이라는 주체를 주체로서 발견한 70년대 민족문학(노동문학)의 효시가 되는 作品이다.

「객지」는 인간적인 요구와 삶의 고뇌가 사회적 상황에 의해 제약되는 현실의 상황을 간척지 공사장이라는 곳으로 축소화시켜 나타내고 있다.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동혁은 이만한 숙부의 연락을 기다리다 관의 주선으로 오게 되며 여기에서 직업군인 출신의 ‘대위’라고 불리워지는 사나이를 만나 간척지 공사장의 비리를 피부로 느끼게 된다.

노임을 법정임금(150원)에 미달된 액수(110원)를 받으면서 게다가 현금없는 전표로 모든 것을 대신 치루고 대규모의 공사를 벌이는 작업장에 개인의 권리금 내지는 소유권에 의해 함바가 운영된다.

「공사관에서야 불평없는 사람이 있겠나, 회사측과 티격태격했지.」

「사흘동안 파업을 했었지.」

「놈들 덕분에 빛이 늘었던 말이야.」

「서기가 전표를 미리 사는가요? 한 장에 얼마씩 입니까?」

「하루 일이 끝나면 백삼십원짜리 맘보 한 장을 받는데, 매일 전표와 바꾼다네. 함바에서는 현금이 아니니까 사실상 백이십원짜리로 써먹지. 현금을 가진 전표장수는 이걸 백십원에 사거든.」

「도청에선 법정 노임이 백오십원이라고 하던데요.」

「그건 나리들이 쓴 글씨야.」

「하루 숙박비 사십원에 매끼 이십원이면 …… 백원에다 하루 십원 남는가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네들의 노동력을 혹사하고 얼마 돌아오지 않는 품삯마저도 온갖 간교한 방법으로 착취하는 회사측의 처사에 반발하여 노동자들은 쟁의를 일으키게 되나, 자기들의 주장이 현실에 있어서 승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타협으로 이 소설은 끝맺게 된다.

임금을 유일한 생활수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노동력의 정당한 댓가를 보장받기 위한 임금투쟁이야말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자기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투쟁을 포기한다면 더 큰 상태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투쟁의 필요성은 생산과 노동에 따르는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에서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객지」는 터무니없는 고리대금, 동불 이하의 처우와 극악한 노동조건 등 한국 노동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고질병을 정면적으로 대결하려는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의 제약 아래서도 삶 그 자체에 대하여 철저한 신뢰와 희망을 끝까지 잃지 않는 끈질김을 강조하고 있다.

「어쩌면 자네들은 혜택을 못받게 될지도 모를텐데? 덮어놓고 불평불만을 터트려 보자는 식이로군.」

「우리가 못받으면 뒤에오는 사람중 누군가 개선된 노동조건을 받게 될게요.」

「우리 노사 관계를 떠나 인간대 인간으로 얘기해 봅세, 자네들 의견을 존중해서 터놓고 얘기하고 싶군 … 얼마를 요구할텐가.」

「더 이상 짐승도 아닌 그따위 말에 대답하고 싶지 않소, 최소한 두 가지의 조건만이라도 확답을 하고 각서를 써주시오. 두 가지는 노임과 감독조에 관한 것이요.」

소장과 동혁의 대화에서 동혁은 고달픈 우리세대의 영웅상을 그려내고 있으나 개인적인 영웅주의적 관점에 빠져버렸다. 또한 동료들의 문제를 잘 의식하고 있으나 해결방법에서는 그러한 그의 선도성이 모든 노동자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단, 「객지」에서 主目해야 될 사항은 어떤 惡한 狀況에서라도 人間性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개선을 위한 쟁의를 해야지 원수같은 심정으로 벌이다간 끝이 없어요.」

처럼 계층 간의 對立이 社會의 構造的 矛盾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人間對人間이 분열된 狀態에서의 싸움이란 있을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 즉, 非人間的인 것에 대한 眞情한 인간성의 획득이야말로 가치있는 결과이다. 人間社會는 어둠을 바라는 완강한 힘과 빛을 갈망하는 억센 힘이 충돌하는 일이 자주 빚어진다. 빛을 갈망하는 억센 힘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解放의 외침이다. 自由야말로 人間精神이 피하는 모든 理性의 총체이며 이를 억압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 最高의 理念이 된다. 자유는 인류에게 가장 값진 것이나 그것을 눌러버리는 장애와 마주치게 되며, 장애에서 가장 억센 힘은 政治的, 物理的인 힘이다.

「객지」는 이 社會의 어두운 그늘과 통증을 노동자의 시각에 맞추어 그들이 갖는 眞情한 삶의 가치회복을 위한 실천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동혁의 ‘내일이 아니어도 좋다’ 라는 외침은 작고 확실한 정신적인 승리이다. 비록 가는 길이 고달프더라도 그 과정을 결코 矛盾·속에 굴복할 수 없으며 이러한 過程의 이어짐은 變革의 씨를 물고 번지는 永遠한 파장으로 마침내 두꺼운 벽을 깨부수는 엄청난 힘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힘은 人間다운 삶을 속박 내지 박탈당하고 있는 오늘의 가장 전형적인 民族

의 存在인 民衆에서 비롯된다. 주어진 社會의 틀 속에서 강요당하는 民衆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킨 民族文學은 더 나아가서 人間解放이라는次元에서 民衆의 구체적인 현장성과 실천적 운동성을 통합시켜 준다.

이상으로 민족문학을 7·80년대를 中心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民族文學이 걸어가야할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6. 民族文學의 方向性

80년대의 마지막 해를 보내면서 民族文學은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한 段階 뛰어넘어 90년대를 設計해야할 것 같다. 70년대와 80년대는 民族文學의 質的, 量的으로 엄청난 變化를 가져온 해이지만 그것으로 滿足해 버릴 수는 없다. 분단으로 인한 對內外的 矛盾의 심화와 그로 인한 민중생존권의 박탈 등 민족문학이 걸어가야할 길은 아직도 먼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온 80년대의 길을 정리·반성하고 그를 바탕으로 90년대를 設計하는 일은 매우 重要的 作業이라 생각된다.

첫째 : 민중적 문학形式의 創出 問題이다. 즉, 장르확산의 問題인데 오늘의 民衆文學이 기존의 文學形式을 차용하는데 그치고 민중적 민족문학을 보다 정확하게 구현할 새로운 民衆的 문학형식의 창출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나마 공동창작 作品들이 요즘들어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개별창작이 가져오기 쉬운 小市民性을 集團의 創作過程에서 어느 정도 길러질 수 있고 共同體的 삶의 한 反映으로서 민중적 문학형식의 좋은 시도라고 여겨진다.

둘째 : 구호적 감상주의의 지양이다. 이것은 민중문학에 가해진 內外的 비판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이 가해지는 그 根本的인 이유는 작가 자신이 어떤 모순된 현상에 대하여 깊은 통찰

력과 내적 필연성에 의해서 우러나온 육성이 아니라, 일정한 관념적 틀 속에서 공허하게 외치는 데서 오는 그릇된 모습이고, 또한 어둡고 암담한 현실을 자신의 삶과 의식에 대한 철저한 인식의 밑받침 없이 作品에 단지 소재로만 선택했을 때 오는 오류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소재주의나 관념적 작품에서 오는 감상적 구호주의 作品은 자칫 민중문학 본래의 의미를 희석화시키고 ‘이것도 문학이나’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셋째 : 民衆文學에 있어서 創作의 主體는 물론 민중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知識人, 전문문인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진정한 민중문학, 民衆的 民族文學 건설이 이루어질 수 없고 참다운 민중문학의 건설을 위해서는 民衆主體의 文學을 민중 스스로와 전문지식인들의 창조적인 대화와 날카로운 토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동하여 전진시켜야 한다. 전문문인들의 경우, 실천적 과제의 불충실로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거의 대부분이 소시민적 文學의 길을 걸어가버렸지만, 복잡다기하게 얽힌 우리 社會의 矛盾을 꿰고 넘어설 수 있는 眞情한 世界觀의 모색과 그것을 자기 문학 속에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 하는 형식적 현실을 올바르게 통일할 수 있는 지속적인 물음과 실천은 바로 知識人 作家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이러한 총체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치열한 정신적 모험으로 作品을 내놓았을 때 민중 스스로의 문학과 더불어 좀 더 나은 민족문학의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 또한 노동자, 도시빈민 등의 민중문제를 통일적으로 인식하여 민족자주화와 민주화 문제로 귀결지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 文學의 이론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민중이 文學創作의 主體로서 登場하고 이들의 문학적 표현양식이 전통적인 시, 소설 양식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 등과 관련하여 민중문학의 민중주체론,

민중문학의 형식론, 리얼리즘, 일상적 생활문학과 운동문학의 문제 등에 관한 여러 논의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그 논의의 근거가 새로운 문학형식, 문학양태에 바탕을 두고 있지 못하고 기존의 민족문학론의立場에서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作家들이 소시민성을 옹호하고 민중主體의 文學을 왜곡, 변질 시키는 사례까지 發生하고 있다. 이런면에서 民衆主體的 시각에서 作品에 대한 해석을 내리고 그러한 바탕 위에서 새로운 文學論을 전개해 나갈 비평作業이 요구된다.

이상으로서 민족문학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민족문학의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은 많지만 이러한 문제점 해결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할 것은 민중적 삶과 실천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으로만 알고 실천은 무시해 버리는 그런 자세도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Ⅲ 結 言

이상에서 민족문학의 현단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질적, 양적 성장과정 속에서 잘못된 점들을 가려내어 그것을 토대로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성까지 살펴보았다. 결국, 우리 민족문학이 걸어 가야 할 길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민중적 민족문학으로서 분단 극복과 외래문화 속에서 우리민족의 자주성을 지켜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들 스스로 모두가 주인된 의식을 가지고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해낼 때 민족문학의 과제는 그 도달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되는 것이다.

불 위에 뜬 기름은 빛을 받으면 부지개빛을 발하며 아름답지만 결코 물과 섞여지지 않는다. 이 사회에는 아직도 포장된 진실을 갖고 포장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 현실모순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그런 희망의 믿음을 향해 오늘도 뛰는 것이다. 우리가 그곳을 향해 뛰어가는 것도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그 ‘믿는 구석’이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위사람들의 비판과 애정어린 격려가 뒤엉켜진 서로의 실천적인 자세일 것이다.

參 考 文 獻

具仲書 ; 「民族文學의 길」, 새밭, 1979.

김명인의 3인 ; 「전환기의 민족문학」, 풀빛, 1987.

김병걸 · 채광석편 ; 「역사, 현실 그리고 문학」, 지양사, 1985.

김준태 ; 「오월과 문학」, 남풍, 1988.